

# 국권침탈의 역사현장-을미사변 (경복궁 건청궁)

한국근현대역사기행

# 21세기 한반도의 외교전략은?

- ▶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열강(미,중,일,러)의 각축과 남, 북한 문제
  - 한반도 중립화론
    - 1904년1월 21일 전시 국외중립선언
    - 미국, 러시아, 일본 등 열강의 보호중립론
    - 중립국 벨기에 모델
  - 한중일 동아시아 3국 연대론
    - 김옥균의 삼화주의, 안중근의 동양평화론
    - 온건개화파 김윤식의 청에 대한 ‘양편’, ‘양득’론
- \* 후쿠자와 유키치의 ‘탈아입구론’, 문명개화론
- ▶ 군사동맹론
  - 한일 군사동맹론/한러, 한미동맹론
  - 21세기 한반도의 신조선책략은?

그래서 나는 김옥균을 쏘았다, 조선의 운명을  
바꾼 김옥균 암살사건(조재곤 저, 푸른역사)



# 1883년 보병사절단/개화파 양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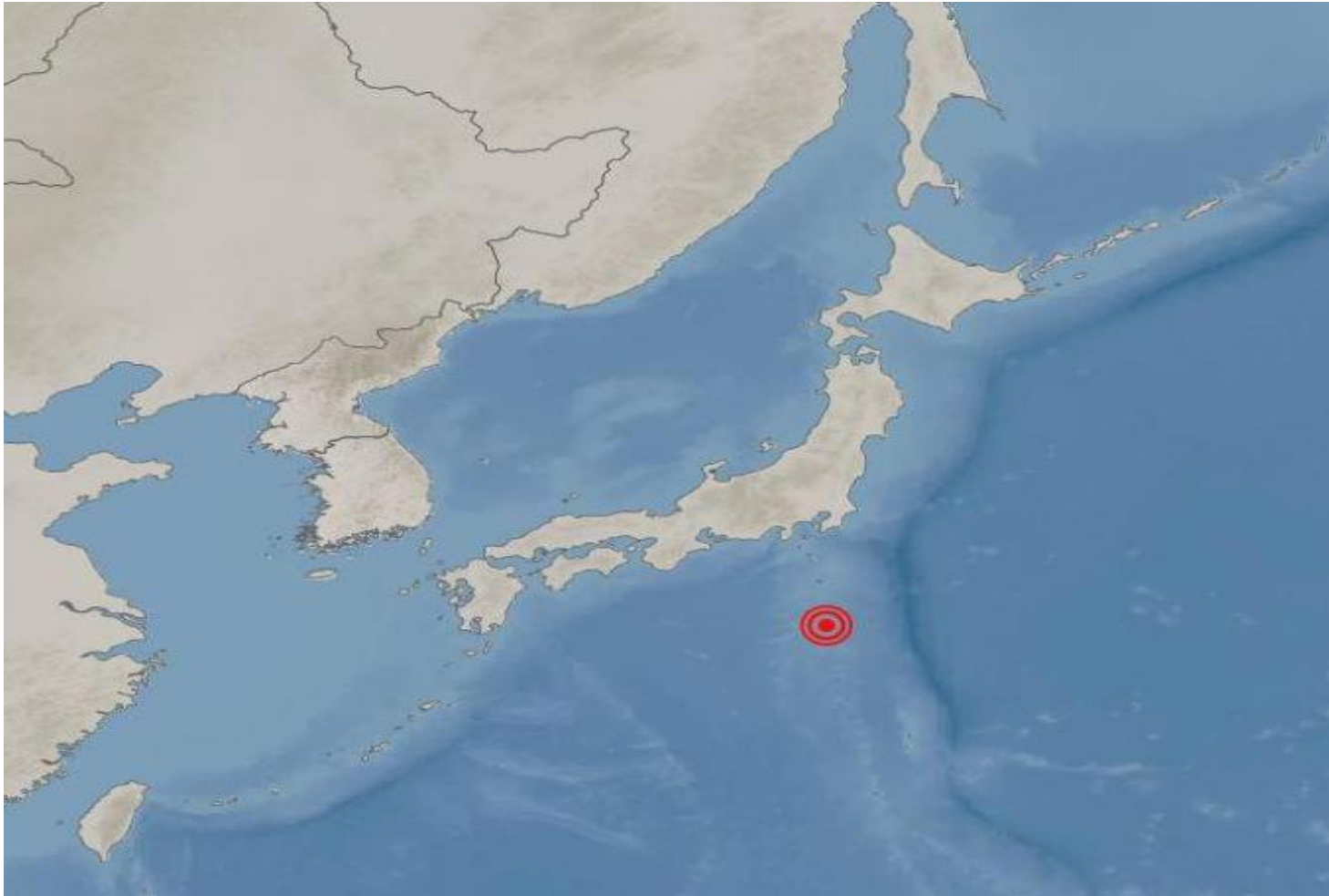


# 김옥균은 왜 상하이로 갔을까?



# 갑신정변 후 개화정객 김옥균의 운명

일본 도쿄->오가사와라제도(일본 본토 남쪽 1000Km, 오키나와 옆) -> 중국 상하이-> 양화진





김옥균(->이와다슈사쿠)  
/ 후쿠자와유기치(난학蘭學->영학英學)



1894(明治27)年3月上海出發前長崎で写す  
(『金玉均』民友社版)



# 김옥균을 쓴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, 홍종우





# 도쿄 미나토구 아오야마 묘지/충남 아산(김옥균묘)



# 청일전쟁, 용과 사무라이의 결투 (강성학 외, 리북)





#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과 개화파 정권





# 일본군의 경복궁 침략과 개화파 정권

- ▶ 1894년 6월, 농민군 진압을 명분으로 인천에 상륙한 일본군. 일본 공사관이 있던 남산 왜성대를 비롯, 한성부 곳곳에 병력 주둔. 백악산 중턱에 대포 설치
- ▶ 1894년 6월 21일(7월 23일) 새벽 4시, 용산의 만리창 출발 일본군 보병연대-> 남대문 통과-> (경복궁 배후의 산=백악산=현 청와대 뒤편 목표 주장; 일본육군 참모본부 편찬 청일전쟁 전사)-> 경복궁 서문인 영추문을 부수고 경복궁 난입.
- ▶ 궁궐 시위대(평양병)의 항전 중지. 대포 30문, 기관포 8문, 소총 3000정 및 다량의 탄약 압수, 무장해제
- ▶ 고종 “한번도 쓴 일이 없는 무기를 빼앗을 이유는 없지 않은가” 항의  
-> 용산 일본군 주둔지로 이틀에 걸쳐 운반해감.

# 1. 을미사변 현장- 경복궁 건청궁(옥호루)



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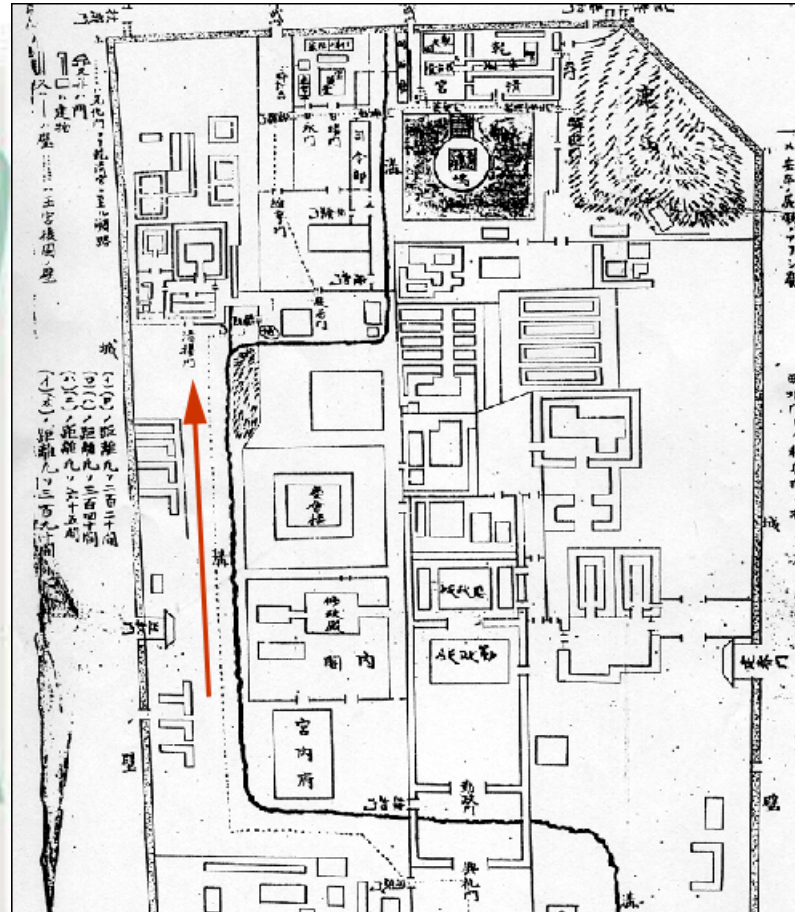
# 1. 을미사변의 현장-경복궁 건청궁

## 1) 을미사변의 진상

- ▶ 1895년 음력 8월 20일(양력 10월 8일)
- ▶ 새벽, 마포 공덕리 별장의 대원군을 설득, 서대문 통과-> 일본 군 수비대 및 훈련대(우범선)와 합류. 광화문 담장을 넘어 경복궁 진입. 시위대(미국인 교관 Mce Dye 지휘)와 교전
- ▶ 새벽 5~6시 전후 경복궁내 건청궁 곤녕합 옥호루에 시신
- ▶ 녹원에서 시신 불태움.
- ▶ 러시아인 기사 Sabatin의 보고서 “훈련대 병사들 속에 20-25명의 양복과 일본 옷을 입은 일본인 목격”
- ▶ “품채 좋고 양복을 잘 차려입은 한 명이 지휘”, “칼을 뽑아 들고 있었던 사람은 4,5명”



### ■ 일본인들의 경복궁 침입 경로







東面 = 樓ハビル一棟ハ王太子及太子妃ノ居所ナリ  
 即チ此テ 該事發シ時 王后陛下ハ 園中ニ遊ヒ  
 (1)ノ所ヨリ (2)ノ所ニ引出カレ此處ニテ 殺害ニ遭  
 ハレタル後 屍體ハ一旦 (3)ノ室ニ移入セ  
 其後 東門ヨリ 移出シ (4)處ニ移テ 焚燒セラル  
 タル由ニテ十一月二日 小宮カ 王城ニ入リタル  
 日 火燒殘リタル 薪炭高 (4)處ニ移テ 焚燒セラル  
 其後 終ラニ 火葬ヲカケタル如キ 形ナリ

## 2) 사건의 처리과정

- ▶ 영구미제사건-히로시마재판소 48명 기소, 증거 불충분으로 전원 무죄 평결(1896년 1월 14일)

### (1)살해 집행자

- 나카무라 다테오(中村楯雄), 후지카쓰 아키라(藤勝顯), 데라자키 다이키치(寺崎泰吉) 3인조(법정 증언)
- 오카모토(岡本, 궁내부 고문), 스즈키(鈴木), 와타나베(渡邊) 3인조(고종 증언)

=> 미야모토 소위





## (2) 대륙낭인의 역할 분담

- 아다치겐조(安達謙藏, 한성신보 사장)
- 구니토모 시게아키(國友重章, 주필)
- 고바야가와 히데오(小早川秀雄, 편집장)
- 오카모토 류노스케(岡本柳之助, 대원군 설득)
- 시바사로(柴四郎, 하버드대 출신, 미우라고로의 참모)

# 을미사변과 대륙낭인





### (3) 암호명 '여우사냥'

- ▶ 대원군•훈련대 공모설(75세의 대원군 입궐)
- ▶ 일본정부 당국자
  - 미우라 고로(三浦梧樓)-당시 주한일본공사. 육군중장 예편. 사건 17일전 부임
  - 스기무라 후카시(杉村濤)-주한일본공사관 서기관
  - 이노우에 가오루(井上馨)-전임 일본공사. 메이지유신의 원로元老, 외무경 역임. 사건 주모자
  - 무츠 무네미츠(陸奥宗光)-일본 외무대신은 와병중

## (4) 왕비 살해와 일본인(김문자, 2009)

- ▶ 지휘부는 청일전쟁 사령탑인 대본영(히로시마)
- ▶ 1895년 4월 17일, 시모노세키 강화조약(이토히로부미, 이홍장)에서 조선의 완전 독립(조공 폐지), 랴오둥반도 할양
- ▶ 1895년 4월 23일, 3국간섭(독, 러, 프)으로 랴오둥반도 환부(CF. 청일전쟁 전비 2억엔 소요)
- ▶ 대본영 참모본부장 가와가미 소로쿠(川上操六)의 미우라 고로(육군 중장 출신) 조선 파견
- ▶ 한성신보 기사를 포함, 남산 일대 일본거류지 낭인이 주범??



## 2. 대원군과 고종, 명성황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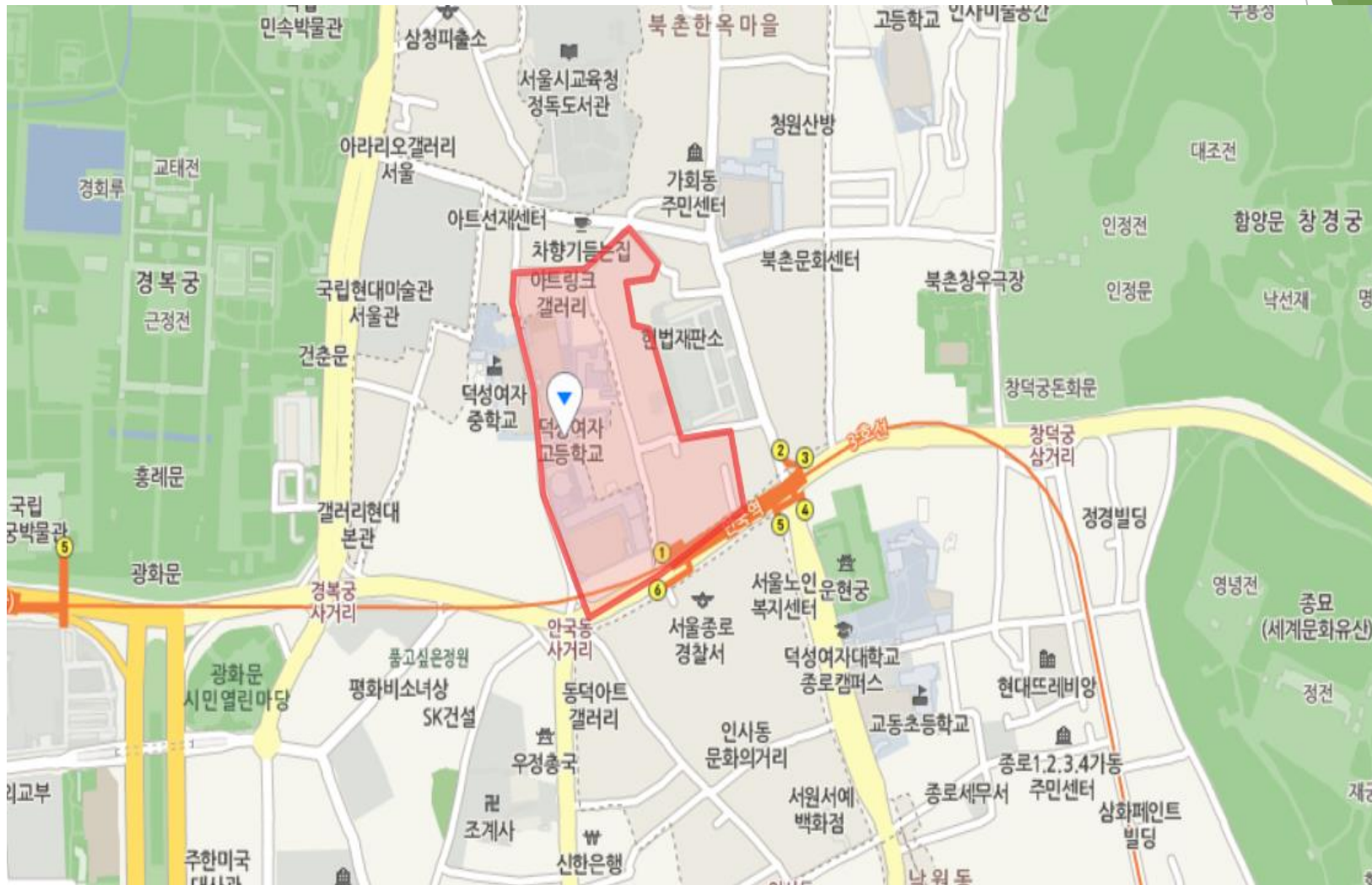
### 1)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관계

- ▶ 대원군의 명성황후 간택 배경: 세도정권기 안동김씨 60년 세도와 외척 발호(국구國舅) 경계
- ▶ 1863년, 12세의 고종 즉위-> 1866년, 고종 15세, 명성황후 16세에 가례 at 운현궁(현재 안국역 부근, 대원군의 사저)
- ▶ 1873년, 고종 친정 선언과 대원군 실각(10년 섭정)
- ▶ 친정과정에서 명성황후의 역할(유교윤리 상 고종의 불효를 대신)
- ▶ 1874년 민승호와 그 아들, 명성황후 생모 폭사 사건
- ▶ 임오군란(1882년) 당시 대원군의 재집권과 중전 승하 발표
- ▶ 1895년 을미사변 때 대원군 입궐(일본의 대원군 주도설 조작)

## 2. 대원군과 고종, 명성황후

- ▶ 대원군 부인 민씨와 명성황후는 12촌 자매지간
- ▶ 대원군 부인 민씨의 남동생(대원군의 처남) 민승호가 명성황후 집안에 양자로 감
  - ⇒ 명성황후의 양오라버니 민승호=고종의 외삼촌이자 처남
- ▶ 명성황후는 1851년(철종 2년) 9월 25일 여주 출생, 6대조 민유중은 숙종 때 인현왕후의 아버지인 노론 명문가문. 증조 성균관 대사성, 조 이조참판, 문과 합격, 부 민치록 과천현감, 영천군수 등 관직 생활; 고아 소녀가 일약 왕비가 된 드라마 등은 사실이 아님
- ▶ 명성황후의 서울생활 안국동 감고당과 운현궁은 지근거리



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#### 1) 폐비 '민비' 이미지

- ▶ 일제시대 이래 조작된 부정적 이미지
  - 을미사변 정당화, 망국론적 시각. 을미사변 가담자인 대륙낭인 기쿠지 겐조(菊池謙讓)의 “조선최근외교사-대원군전 부왕비의일생大院君傳附王妃の一生”(1910) 등에서 의도적 왜곡
- ▶ 부덕不徳한 며느리 <-> 대원군과 권력 암투
- ▶ 총명하나 간악한 왕비, 민씨척족 세도의 중심
  - <-> 유약한 군주 고종 이미지(드라마, 영화, 뮤지컬 등)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- ▶ 영화 ‘청일전쟁과 여걸 민비’ (1962)
  - ▶ 뮤지컬 ‘명성황후’(1995)- 개화의 선각자, 국모 이미지
  - ▶ 영화 ‘한반도’ (2006)
  - ▶ 영화 ‘불꽃처럼 나비처럼’ (2009)
  - ▶ 뮤직비디오(조수미)
  - ▶ TV 드라마 등 주로 궁중 암투, 처첩 간 갈등
- <= 궁중 비사秘史가 아닌 정책노선에 대한 평가;  
명성황후의 인아거일引俄拒日 정책은 청이 조선책략에서 권고한  
방아라사(러시아) 전략 거부, 을미사변의 원인

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#### 2) 출신배경과 성격

- ▶ 아버지 1858년 60세 사망(명성황후 8세)
- ▶ 홀어머니 외동딸. 생모 한산 이씨는 둘째부인. 첫 부인은 노주老洲 오희상의 딸(36세 사망).
- ▶ 가문에 전혀 하자 없는 19세기 경화사족京華士族.
- ▶ 형제자매-1남3녀 중 막내딸. 다른 형제 요절
- ▶ 교육과 독서-유교적 경륜
- ▶ 두뇌 명석, 총명, 날카로운 기지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- ▶ 담대하고 강인한 성격; 임오군란 당시 장호원까지 피난
  - 50여일만에 생환
- ▶ 갑신정변 무력화; 경주궁에서 창덕궁 환궁 주장
- ▶ 1894년 6월, 일본군의 경복궁 포위 당시 행동

#### 3) 명성황후의 외모

- 가냘픈 몸매, 창백한 얼굴, 날카로운 눈과 뚜렷한 이목구비(시의侍醫 언더우드 여사)
- 진주가루 사용, 창백한 피부, 칠흑같이 검은 머리칼(이사벨라 버드 비숍,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, 1898년)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

<명성황후 사진 진위논쟁; 까를로 로제티, 코레아 코레아니>



### 3. 명성황후에 대한 오해와 진실



## 4. 명성황후 재평가

- 1) 이자벨라 비숍(영국 왕립지리학회 최초 여성 특별회원, 1894~1897년 4차례 한국방문 )과의 인터뷰
  - ▶ 영국왕실과 내각의 관계, 관리등용제도, 귀족의 권한, 왕실 비용 등 질문.
  - ▶ 시베리아 철도의 리로당 건설비, 청일전쟁에 대한 관심
- 2) 전통적 가족관계나 유교 이념에 의한 평가 보다는 격변하는 당시 동북아 국제 정세와 근대화의 파고波高 속에서,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관계인 청,일에서 벗어나 미,러를 끌어들이는 ‘코페르니쿠스’적 발상의 전환. 고종의 정치적 참모 역할에 주목
- 3) 을미사변의 진상 규명 필요